



만추의 계절 11월입니다.

가을이란 계절이 무척 빠르네요.

가을은 깊어가고 낙엽이 지기시작하는 계절입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기전에 무언가 남겨야하는 시기입니다.
쌀쌀한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기분좋은 하루
보내세요 ~.

* 11월 일정 안내 및 알림 *

♣ 일정 안내

- ▶ 11월 06일 (수) 생신잔치 한소리 풍물단 공연과 함께합니다.

이정자어르신(음10/10), 엄말매어르신(음10/12)

정정연어르신(음10/14), 정숙자어르신(음10/22)

- ▶ 11월 13일 미용봉사 - 최지애 강사

- ▶ 11월 27일 미용봉사 - 손소영 강사

♣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편의생활을 위해 책상과 의자를 교체중입니다. - 더욱더 어르신을 안전하고 정성껏 모시려고 전직원이 힘쓰고 있습니다.

♣ 10월 23일 광혜병원에서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 주간보호에 새로가족이되신 요양보호사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성희 요양보호사, 손영윤요양보호사

♣ 본인부담금 계좌번호 :

하나은행 (주)동래데이케어 186 - 91002 - 83704

♣ 공지

- 2019년 9월 ‘급여제공기록지’ 부분은 각 가정으로 우편발송 하였고, 확인자서명은 부득이 어르신께 직접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11월의 건강정보 *

잘 넘어지고 손 떠는 파킨슨병, 조기치료가 중요

파킨슨병은 1817년 영국의 제임스 파킨슨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손발의 떨림 증세, 움직임이 느린 운동 완서증, 몸이 잘 굳으며, 말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며, 얼굴표정이 없고, 자신도 모르게 침을 잘 흘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잘 넘어지며, 어깨나 등이 짓눌리면서 아프고, 온몸이 굳어 불쾌감이나 통증이 잘 일어납니다.

파킨슨병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1960년 파킨슨병 환자들의 뇌에서 흑질 부위와 선조체 부위의 퇴행 현상에 의해 도파민(dopamine)이란 물질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이 알려진 이후로 여러 약물들이 개발되어 환자들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의 약 1%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 환자에서 유병률이 높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전조증상으로 전신 피로와 팔다리 통증, 목직한 느낌 등이 있지만 관절염이나 신경통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조기에 발견 시 뇌에서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하고,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맞추는 약물 치료만으로 뇌신경세포의 파괴를 예방하고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춤추듯 몸을 흔들게 되는 ‘이상운동항진증’ 등이 나타나면 수술적 치료인 뇌심부자극술을 받습니다.

머리에 작은 구멍을 낸 후 미세전극을 이용해 뇌의 비정상적인 신호 위치를 찾아 볼펜 심 크기의 가는 전기자극기를 심는 수술로, 개복수술과는 달리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하여 수술 당일 식사와 운동이 가능할 만큼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원인

뇌에서 흑질 부위와 선조체 부위의 퇴행 현상에 의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왜 흑색질 신경세포의 변성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진단]

의사의 병력청취와 신경학적 검사에 의거한 진찰에서 결정됩니다.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는 뇌질환이 무수히 많아 이를 감별하기 위하여 뇌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유사질환들과의 감별은 질병의 치료 계획, 치료 예후 및 대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파킨슨병은 자율신경계를 포함한 여러 부위를 침범하는 수도 있어 전신적인 내과적 검사와 파킨슨 척도, 일일 일과능력 척도, 운동능력 척도, 식도경 검사, 방광기능검사 등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각 병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